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소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주일 예배 봉사위원

	12. 11	12. 18	12. 25
대 표 기 도	노지민 성도	강희수 성도	김영희 권사
성 경 봉 독	노지민 성도	강희수 성도	김영희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2월 축복인사 - 구주 예수님은 반드시, 꼭, 다시 오십니다(공통적인 고백)

1.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2.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 예배 안내 - 오후 1시 30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오후 1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장래황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2. Adven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114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정용현 안수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시 35 : 1 - 8(구p826) (Psalm 35:1-8)	정용현 안수집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말의 대상, 행동의 대상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노지민 성도

### †기도제목

1. 하나님 앞에 감정을 솔직하게 쏟을 때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주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전도, 구제, 봉사, 영성훈련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되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성경이 요구하는 인내

독일 나치에 체포되었다 풀려난 유대인 정신과 의사 Viktor Frankl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 첫날까지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증언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수감자 대부분이 성탄절에는 석방되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다가와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그들은 용기를 잃었다. 절망감은 그들의 저항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그 중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소망은 고난을 인내할 힘을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견뎌 낼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미래와 소망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속권과는 비교할 수 없다(롬8:18)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현실에서도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그날을 고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 영성의 힘 / 진재혁 목사  
(케냐 선교사)

###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나눠보세요
2. ‘말을 지혜롭게 사용한다’ 것에 대해 나눠보세요